‘규제개혁 대명사’ 영암군, 대불산단 전봇대 지중화 ‘속도’

산자부 공모 선정 13억 확보…2026년까지 1.6㎞ 구간 확대
대형 선박 블록 등 운송 여건 개선…조선업 물류비 절감 기대

영암군이 대불산단 내 물류 흐름과 도로 통행을 방해해 온 전봇대의 지중화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2차 사업비로 국비 13억원을 확보, 전봇대 뽑기 재개에 나섰다.

영암군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등과 함께 기업규제 해소, 대불산단 활성화 등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대불산단 내 13개 구간, 총연장 1.675㎞의 배전 선로를 지중화하고 지장 전주를 이설할 계획이다.

대불산단 지중화 사업은 2006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불산단은 조성 초기 자동차·기계산업 중심의 일반산단이었으나, 대형 선박 블록과 철구조물 등 조선산업 위주의 산단으로 변화하면서 이른바 ‘규제 전봇대’ 문제가 대두됐다.

산단 내 도로를 통행하는 최대 32m 크기의 선박구조물과 낮은 전선 높이(8천12m)의 전봇대가 물류 흐름을 방해하며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안팎의 전봇대 지중화 필요성에 따른 여론을 반영해 1차 지중화 사업으로 2015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29개 구간, 총 19.35㎞의 지중화 작업을 완료했다.

영암군은 이번 2차 사업에서도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협력’ 방식에서 ‘그린뉴딜’로 전환해 산자부 공모에 참여, 최종 선정됐다.

2차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선박블록과 구조물 운송 여건이 크게 개선돼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한 산단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지중화 사업 선정은 대불산단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제 혁신과 산단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암군이 대불산단 내 낮은 전선 높이의 전봇대가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전봇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명현관 해남군수 “솔라시도 기업도시 국제학교 유치 필요”

설립 타당성 확보·유치 검토 지시…교육환경 개선 기대

명현관(사진)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례회의에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업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학교 유치도 검토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인구 3만6천600명의 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며, 총 3천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해남군은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와 사업 주체 등과 협력해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군 재정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꿈의 도시로 조성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며 “국제학교 유치 과정에서 지역 교육계와의 형평성 문제, 군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경제 효과 등을 세심히 고려해 지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해남군 환경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열렸다. 용역에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을 예측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군, 한우 먹이용 조사료 확보 ‘총력’

가을 파종용 사료작물 종자 18t 추가 공급

강진군이 조사료 수급 안정과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7일 강진군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가격 상승과 동계 조사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천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270여 농가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18t을 추가로 공급했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는 벼 수확 후 남은 볏짚을 재료로 만든 조사료로, 소 한 마리가 1년에 약 4롤(500㎏)을 소비한다.

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연간 약 400롤이 필요한데, 올해 벼멸구 피해와 잦은 호우로 인해 볏짚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볏짚 곤포 사일리지의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롤당 1만5천원 상승했다. 이로 인해 소 100마리 기준 농가는 연간 약 600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동계 조사료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사료 적정 생산량 확보와 안정적인 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계 조사료 종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추가 공급했다.

종자대금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파종 실패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비했다.

김경국 축산과장은 “한우 가격 불안정과 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재배 면적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내년 동계 조사료의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이 오는 2025년 4월30일까지 신안 젓갈타운 내 상가에서 옛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신안 지도항교 옛 모습(왼쪽)과 사진전 개최를 기념하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 지도읍, 역사 간직 사진 30점 선봬

내년 4월30일까지 젓갈타운 내 상가서 옛 사진展

신안군은 27일 “내년 4월30일까지 신안 젓갈타운 내 상가에서 지도읍의 과거 모습을 담은 옛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던 옛 사진 430점을 모아 보존 상태가 좋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사진 30점을 전시한다.

전시된 사진은 1909년에 개교한 지도공립보통학교, 해제-지도간 연륙교 공사, 지도향교 석전제 등 역사의 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전시됐다.

사진이 전시된 지도는 섬에서 섬을 다스리라는 고종의 명에 의해 1896년에 문을 연 지도군의 소재지로, 북쪽으로 군산 선유도부터 남쪽으로 진도의 섬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다 18년이라는 짧은 시간 존재하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유일한 향교와 전통시장은 지도읍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사진을 전달한 한 주민은 “옛 사진을 통해 어릴적 모습이 떠올랐다”며 “자칫 버려질 수도 있었는데 군에서 옛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어 다시금 나의 추억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라져가는 옛 모습을 고화질로 복원하고 전시함으로써 역사 자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옛 사진 모으기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농어촌公 나주지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옥 1층…원스톱 행정처리 민원인 편의 도모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27일 “사옥(용산동) 건물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지적·토지·건축 ▲농지대장·농업경영체 ▲지방세·국세증명 등의 서류를 연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나주지사는 지사를 찾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나주시 시민봉사과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나주시가 지사 방문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의 서류 발급 수요에 대한 응답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고객들은 원스톱 행정 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업무를 보러 온 원거리 방문자 또는 교통약자들이 서류 구비를 위해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강수진 나주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리성 증대를 위해 나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최원석 목포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화재 예방 조례 개정안 발의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대형 화재 예방…지상 설치 유도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상동·삼향동·옥암동·사진)이 제394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소화장비 및 화재감지 시설,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등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4)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139건이며,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배터리의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조례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원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만 초점을 맞춰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이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해당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오는 29일 제3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 청산도 단풍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내일부터 단풍길 축제…3㎞ 단풍나무 터널 드라이브 최적 코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단풍길(사진) 축제가 열린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청산도 단풍길에서 29일부터 12월2일까지 나흘간 단풍길 축제가 열린다. 청산도 단풍길은 슬로길 9코스로 상수원 입구에서부터 지리 청송 해변까지 약 3.2㎞이며, 도보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걷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행사 기간 동안 청산도 사진 동호회인 ‘포토 팩토리’에서 단풍길을 찾는 주민·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해 주고 인화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기념사진 촬영·인화 서비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공하며, 지리에서 국화리 넘어가는 방향 중간쯤 위치한 컨테이너를 찾아가면 된다.

또한 날씨가 좋아 별이 잘 보이는 오후에는 은하수 출사 프로그램인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예약 및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인생샷’을 통해 하면 된다.

/완도=윤보현 기자